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전소 건설장을 돌아보니 신심이 생긴다고, 이런 험한 곳에서, 상상할수 없는 혹한 속에서 거창한 대상건설을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대상이면서도 우리 당력사에 청년들이 세기는 또 하나의 빛나는 자욱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발휘

되는 청년들격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둘도없는 청년강국이라는것을 힘있게 과시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새로운 시대어로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볼수있었다고, 자신께서는 전군민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그들과 함께 맘을 흘리며 대자연과의 싸움을 벌리고싶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장에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청년들격대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나라의 곳곳마다에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대기범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세운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 백두산칼바람에 땀을 달고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므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

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고, 당은 청년들을 굳게 믿으며 청년들이 강성국가문제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단단히 마음먹고 중시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청년들격대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였다는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잘 알려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우리 당의 70년 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라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자고 하시면서 완공의 기쁨속에 이곳에서 청춘들의 대항쟁공연을 진행하자고, 자신께서 꼭 보시겠다고, 그날 발전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자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백두산선군청년들격대원들은 멀고 험한 건설장에 찾아오시여 한없는 믿음과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영예로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평도자께서는 항공역사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내부시공에서 나타난 일련의 부족점들을 바로잡는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선 미학생, 선 편리성을 구현할데 대해서도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에서 정해진 기일을 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2항공역사물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척도를 보여 줄수 있게 완공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 《아르구멘타이

파피》,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 신문 《쁘라우다 브리모리야》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통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민주공화국에서 연단 인터넷홈페이지는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로씨야, 민주공화국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2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남자축구 선봉팀과 해외봉사대의 경기를 관람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평도자께서 선봉팀과

해외봉사대의 남자축구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경기는 선봉팀이 3:1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도자께서는 선수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벨라리아 신문 《다리크 뉴스》, 프랑스잡지 《르 부앙》, 도이칠란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도이칠란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평도자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그분들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베트팩스통신, 신문 《로씨스카야 가제타》, 일본 《니혼게이지사신보》, 만민신문 《더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맨마》, 프랑스의 RTL방송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주체사상전국토론회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주체사상전국토론회가 11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에는 베네수엘라의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들,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편성단체원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부위원장 라몬 세르베는 다음과 같이 토론했었다.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회고하는것은 조국과 사회주의, 국제적련대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숭고한 의무로 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린시나이에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항일의 불길속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밝혀

주는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세계에 공인되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조선혁명은 자기의 독창적인 정치철학과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다.

김일성주석의 업적중에서 중요한것은 총대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그를 실천에 구현하신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성취하신 후에도 군사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기에 앞서 정무력을 건설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언제나 군령강화에 큰 힘을 넣으시고